

> 완전한 회개...

성찬식은 이번주 말씀에 들은대로 신부를 통해서 받고 싶다고 하셨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고난의 주로 가셨기에 알고 깨닫고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신부된 너희들이 성찬식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셨다. 신부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주님께서 매달린 성찬식의 고통이 아니라 정결하게 됨으로 인해 죄가 없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성찬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온전히 회개가 됨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천년 전 초림 때 유대인들이 핍박 -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십자가에 못박는 무지함의 역사 이시대도 재림주를 못만나고 있다. 영으로 재림한 예수님을 맞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맞지 못했으나 제자들은 맞을 수 있었다. 무지함으로 맞지 못했다. 맞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맞아야하는데 부분적으로 맞았다. 선생님의 육신은 맞았으나 선생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스승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게 되어 근본을 모르게 되고 선생님을 육의 눈으로 보게 되고 육의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결국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육적인 신앙. 예수님을 몰랐다. 스승은 처음과 끝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우리는 전환이 안되었다. 그것이 근본 회개의 첫 번째이다. 생각과 사고가 육적이어서 스승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 육성을 버려야한다. 애국신도 제대로 못 다듬었다.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면 스승처럼 지켰으면 우리들 다 현재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말로는 지킨다고 했지만 육적인 차원에서 지켰다. 지금 와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영적 1인 자가 되어라 신령한 자가 되어라 스승의 뒤에 역사하신 주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스승에 대해서 조금더 알게 되었다. 육적인 사과와 생각 가지고 섭리를 뛰었던 것이 다 회개 거리다. 스승은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했는데 선생님의 육만 쫓아 다녔다.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쳤는데 우리는 왜곡했다. 깊이 생각하라. 계속 육적으로 돌아갔다. 스승이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면 안다. 선생님은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육적으로 열심히만 했다. 작업하면 ... 그런 선생님의 모습만 보였다. 각자 보이는 부분만 봐왔다. 선생님은 백퍼센트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생명에게 나아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안한다. 그때 그때 육적인 눈으로 쳐다본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생명에게 말씀을 전하니 역사가 일어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어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증명한 생명보다 나에게 시험된 생명이 더 많았다. 섭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강의해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회개해야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본적으로 우리 스승처럼 완전히 영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문과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니 백퍼센트 전환이 안되었다. 사탄이 틈타고... 영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진행된 많은 시간들. 선생님이 사명 주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사명을 한다. 그러면 사명의 제단이 하늘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선생님의 작업은 모두다 영광이 된다. 왜? 예수님과 일체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을 못한다. 그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걸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스승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회개해야한다. 육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창타도 육적으로 푼다. 아담하와 복직의 역사로. 초창기 때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 임한 아담이니까 하와가 누군가 있어야겠네 이런 육적인 해석을 했다. 아담과 하와 복직 역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맞이해서 통해서 복직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게 근본복직 역사이다. 선생님 통해서 여자들을 취한다고? 그게 통일교의 논리다. 피갈음이라고 문선명씨가 열두아들... 육적으로 푼 것이다. 영적인 말씀을... 그걸 초창기들이 보고 왔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야한다면 사람들 의식들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이상한 논리를 넣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런 사이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된다면서 오래된 사람들은 배웠다. 절대로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안구현 등이 계속 이야기해왔다. 전체가 있는 중에도 은근히 가르친다. 상상을 하게 만든다. 회원들이 상상을 하게 한다. 그럴수 있겠구나 씨앗을 사탄들이 뿌려놓았다. 파생된 결과가 지금의 선생님 십년형이다. 그사람이 가룟유다이다. 외경에 보면 창녀로 유대인들이 꼬셔서 가룟유다를 꼬신것이였다. 그렇게 해서 너희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돌아간 것이다. 아담하와때도 예수님때도 이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다. 가룟유다처럼 사탄씨를 뿌려놓았다. 우리가 스승을 팔아먹은 것과 같다. 유대인처럼 육적으로 잘못봐서 뒤에 역사하시는 주를 못보고 가룟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은 것이다. 성찬식을 맞이 하려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개 해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성찬식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박는 것과 같다. 믿는 제자들 때문은 아니었으나 오해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지금도 재림했다고 하시는데 백프로 믿어야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것과 재림을 백퍼센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못박는 자들이다. 백퍼센트예수님을 살라중해○야한다. 말씀에 백퍼센트 순종해

야한다. 스승이 그러하지 않아도 기뻐 했었는데도 그걸 생각하는 스승들 가롯유다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가라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나 가라지가 스승을 팔면 육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 예수님 영으로 초립하셨다. 땅에서 하와 복직역사 아무도 못했다. 예수님 육신되어서 우리 스승을 정결하게 키우셨다. 신부인데 신부가 신부를 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깨진다. 누가 제일 좋아하나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 그걸 하게 하겠냐. 절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은연중에 인정한다. 미친것들이다. 가롯유다와 똑같다. 이시대 십자가에 다시 못박는 것이다. 이런 자들 백퍼센트 지옥 간다. 그래서 매달렸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다. 죄를 회개시키니까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가더라. 근본의 회개가 이만큼 무섭다.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해야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는 것이다. 자범죄도 많지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한다. 그 죄에대해서 정확히 알고 벗어나야한다. 벗어나는 방법은 사랑이다. 백프로 사랑하는 것이다. 일프로라도 다른데 남편, 아이에게 가면 절대 안된다. 메시아에게 갈 사랑은 백퍼센트 가야한다. 위물이 넘쳐서 스승에게 가야하고 그게 넘쳐서 아내와 형제에게 가야한다. 우리 스승은 그것을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 스승이 다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스승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스승이 준 것으로 생각한다. 육적인 생각이다. 백프로 하나님성령님 예수님을 맘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셨다. 내가 표상이다. 스승... 그런데 우리는 못했다. 육적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 스승이 가르쳐주셨다. 맘과 뜻과 목숨 다해... 그것이 우리의 책임분담. 생명 전도하는데 책임분담 다하고 생명위해서 사주고 챙겨주고 했지만 이것은 백프로 사랑 아니다. 나 선생님 보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육적 스승은 먼저 예수님을 백프로 사랑하고 넘쳐서 생명들에게 간 것이다. 앞을 다 빼버리고 육만 찾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스승의 근본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말씀 실천도 육적으로 한다. 자기 판에는 맘과 열심히 한다. 그냥 채간다. 선생님이 손대고 손대야 산다. 우리 스승의 사상과 정신을 제대로 맘과 뜻과 목숨 다해 모시고 섬기는 거 쉽지않다. 신인데 어떻게 쉽게 사랑하냐. 맘과 뜻과 목숨 다하지 않고서 겨우 사랑할 수 있다. 만주의 주를 모시는데 대충이 되느냐... 신은 너무나 빠르다. 신은 좌정해서 역사하시는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육의 눈으로 보면 선생님처럼 따라하지 만 껌데기 신앙이다. 그게 최고인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것으로 예수님과 일체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천안했다.

말씀은 신이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한다. 말씀을 늘 상고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한다.

예수님을 계속 찾아야한다. 이일을 해나가야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육계 상황 어떻게 아냐

말씀이 실천하라 하면 돌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한다. 계속 묻고 의논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한다. 편찬네 이거 하가 했던 것 그러니 안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쌓은 돌은 다 뿔아내신다. 주님과 의논을 안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한다.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한다. 그냥 대화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입장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데 말을 해야지...

예정 -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예리미아 하나님의 눈물..

전지전능성 인정...

꽃만 들이대면 누가 뵈는지 누가 아냐? 대화를 해야지. 대화안하니 그게 짝사랑이다. 내 옆에 와서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섭리에서 짝사랑을 만든 것. 말쓰므로 너희와 함께 했다고 짝사랑이다. 이걸 회복해야한다. 회개해야한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한다. 사랑의 대화를 해야한다. 평소에 해야한다. 평소 신앙. 환경과 여건을 가리지 말고 스승은 환경과 여건을 가리지 않는다. 어디 있든 는 대화하신다. 주님...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게 안느껴진다.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두통을 해야한다. 대화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있다. 마음에 감동오기도 하고 함께 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펠레에 펠 수 없는 관계로 만드셨다. 부부가 결혼하면 아들 딸은 호적을 파도 내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펠수가 없다. 그런 관계다. 내가 하나님 부인해도 부모다. 부인해도 주님은 가서 사랑해준다. 우리가 애를 낳고 모른척하냐. 영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챙기신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탄마귀 귀신이다. 그걸 자른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자른다. 수수과계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한다. 영을 그렇게 창조했다. 그 법칙을 벗어나면 지옥간다. 루시퍼는 그것을 스스로 깨고 자기 멋대로 산다. 세상사람들이 왜 지옥가냐 사랑을 회복 안하니까 루시퍼랑 똑같이간다. 지 맘대로 한다. 우리도 그러면 주님과 대화 안하고 말만 ... 껌데기만 신부지 루시퍼가 자기 집처럼 들락거린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전이다. 깨끗한 신부... 하나님아 좌정해야한다. 육적으로 사니까 루시퍼가 들락거린다. 지옥 안가겠냐. 회개하면 예수님이 널 샀다. 파값으로 샀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다. 신부로서 산 것이다. 그런데 샀으면 산 사람이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인데 내 멋대로 산다. 그러니 루시퍼 들락거려. 모

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스승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침범을 못한다. 예수님과 일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777인을 치신다. 욕에 7영에 7혼에 7그런데 그거-것을 내것인야. 사용하면 루시퍼가 바로 들어온다. 싹 꼬신다. 욕적으로 세상으로 빠지도록 루시퍼는 너무 똑똑하다. 99%\$안된다. 평소에 저사람 신앙 너무 잘한다. 성격 좋고 지식적이고 전도도 열심히... 나중에 이말씀이 싹 전환되니까 이상하다... 끝까지 가봐야한다. 그사람은 사고가 100%가 아니다... 따라간다. 루시퍼가 그만큼 무섭다. 내말은 새새 3미이니 지켜라. 말씀을 내가 모사 쓰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말씀을 따라서 100% 가야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있으니까 새로운 말씀 가져오셨다. 유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바라보니까

30개론에 잡혀있느니까 내려와. 지금 o열어지는 말씀 일단 전해. 구약약을 새롭게 하는 말씀 지금 재림의 말쓰도 30개론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30개론을 온전하게 하는 말스습. 따라가야한다. 유대인들 안따라가서 구원 못받아. 말씀에 다 나왔다. 나는 그런적 없다 그런데도 못따라간다. 선생님에 대한 관. 예수님에 대해서 죽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안따라갔다. 올해와서 튼 것이 아니다. 오래 되었다. 말씀 깊이 안들으니까 모른다. 오래 되었다 지옥을 경험하면서 까지 완전히 전환시켰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러-하게 하면 지옥가겠구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면서 가지말라고 말씀이 전환된지 오래 되었으나 안따라간다 과거에는 선생님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마지막 재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상천국 으걸 해야만 갈 수 있다. 그걸 해야했다. 지상천국을 만들었어야한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우리 신부역사는 너무 힘들다. 기성은 너무 편하다. 똑각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않느냐. 30개론만 가지고 신부 될것같으면 왜 새 말씀 주시냐 매일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냐. 이말씀 따라가예 신부가 된다. 과거의 말씀 전환되면 쫓아가야한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과거 말씀에 쩌든 사람 빠리 전환해야. 홀러딩 벗고 짐을 들쳐매고 불난 상황. 우리고 그와같은 상황이다 모든 걸 버리고 가야한다. 일단 버리고 가야한다. 그래야 지금의 말씀을 쫓을 수 있다. 전반기의 생각 사고 모두 버려야한다. 사명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변해서 이말씀배우면서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한다. 그래야 예수님 나에게 오신다. 과거의 관으로 만나면 100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성령을 받을 때는 예수님 재림할 것가-을 이케 하다가 식는다. 사탄이 들어오고 혹시 선생님이 나오면 다시 역사하지 안으실까? 완벽하게 회개하고 전환해야한다.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한다.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한다. 내일 어떻게 될지언정 아멘 받고 따라야한다. 그래야 마지막 인을 안맞는다. 회개 하고 이 말을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야한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된다. 토를 안단다. 영이 거듭나면 토를 안단다. 내 영은 토를 안단다. 내영은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못하다.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선생님하고 잤다고 진짜냐3 날짜 대라. 말 못한다. 따져들면 그제야 고백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스승을 못박는지 모른다. 사탄의 인을 맞아서 모른다. 스-생님 몸이 아프다고 암걸러-셨다고 기도해주면 감사하다고 하다가 시험들면 선생님 - 나는 여자 절대 안믿는다. 선생님이 나를 만졌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또 그게 아니다. 선생님이 기도해준 거라고 이걸 대화하다가 은연중에 나는 선생님꺼야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 미친 사람들이 많다.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욕적으로 우리 스승을 바라봤기 때문에 욕성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 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하니까 그런 것. 주님과 일체되는게 그게 아니다. 남자들은 욕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나누냐. 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오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게 문제를 일으킨다. 가룟유다처럼 문제를 일으킨다.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간다. 그러니까 지옥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가라지다. 연대죄 한몸이다. 내안에 암이 생기면 내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냐 손이 실수하면 내 몸이 실수한 것. 내 죄라고 생각해야-한다. 욕적으로 바라본거 회개해야한다. 말씀을 100% 믿지 못한거 회개하라. 영적으로 전환하라. 영계에서 이뤄지는데 영은 왜 모르냐. 욕이 영으로 변화된다고 하니까 따진다. 왜 안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왜 안되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왜- 못가냐. 하나님의 법칙에는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법칙 벗어나서 안하신다. 서해안 밀물 멈춘 것은 믿으면서 ... 욕의 눈으로 보니까 벗어나게 보이지.. 예수님께 물었다 끈을 잡고 있는데 고무줄을 다 뺏기다가 하나 풀어놓으면 그부분만 안뺏겨진다. 자전과 공전에서 그부분만 힘이 안가게 갈 수 있다. 간단한거다. 설명이 안된다고? 받고 가야한다. 선생님 성령을 말씀을 100%믿으면 토달 것도 없다. 못믿으니까. 영적인 부분과 욕적인 부분을 같이 있는데 모른다. 이해 못한다. 내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 성령을 받으면 영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통하는데 못받으면 예수님과 통할 수없다. 혼적 차-위-에서 성장해선 안된다. 성령을 받으면 천국가는 영으로 변화시킨다. 어마어마한 영으로 변화되어야한다. 나한테로 임한다. 천사와 같이 성경에 그런 역사가 제자들 외에 없었다. 엄청난 역사다. 제자들은 신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신부역사이지 않느냐. 그러려면 영이 변화되어야한다. 예수님 심정을 바로 받아야-한다. 1 성령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1 하나님에대해 깊게 알게 되고 토를 안달게 된다. 내 영은 다 보면맞거든. 예수님 메시아인거 알거든. 절대 토 안단다. 내 욕을 꼭 붙잡고 가면 꿈쩍 못한다. 내영은 예수님께 꼭 잡히고... 그러면 사탄 이기는 것. 우리 스승과 같은 입장까지

가야한다. 스승이 맘과 뜻과 목숨 다헌해 사랑하신 것.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라.

모시고 섬기는 방법. 그리고 실천. 그대로 하면 된다 아멘하고 하면된다. 30년간 연단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해야한다. 성찬식에 정결한 신부로 맞게 된다. 내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영광의 주로 맞아야한다. 내가 하는 것이아니다. 주님이 역사해주니까 너무 좋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한다. 나는 이제 신부라고 샘 말씀하셨다. 대행의 역할이었고 자리 비워드린다. 모든 것이 예수님. 이년 비나도 들었다. 모세때는 모세를 주라고 했다가 ○예수님오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과정중에 재림을 배웠다. 그러니까 주라고 봤으나 마지막 재림을 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전환되어서 예수님께달아야한다.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 목숨걸고 하라. 여기까지다.

기도...

